

학생법정 일정

- 전쟁과 여성인권 워크숍 진행(8월 25,26일)
- 학생법정 발족식: 99년 9월 29일 홍익대
- 분과별 계획마련: 99년 11월까지 완료
- 학교별 모의법정 준비단위 지원, 실험적 적용
- 1차 거리 선전전 진행(마로니에 공원에서 우리차 팔기와 함께 선전전 진행-가-)
- 정대협 홈페이지내 학생법정 홈페이지 마련, 개소
- 법정 구성을 위한 시나리오 완료와 법률분과 자문위원과의 공청회(가):2000년 1월중
- 구체적 행사장 마련과 2차 선전물 제작
- 2차 거리 선전전 진행: 1999년 12월말
- 장소 확정 및 초청장, 포스터 작업완료:2000년 2월
- 할머니 증언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가):2000년 3월중
- 3차 거리 선전전 진행:2000년 1학기 개강후
- 법정 문예판 완료 및 행사단체 섭외:2000년 3월중

학생법정 같이 준비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학생 모의전법 법정은 2000년 4월에 성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 여러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많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관심과 활동이 학생법정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 전쟁중 성범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법정에 함께할 분들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2000년 국제법정과 함께하는 한국학생준비위원회
02) 365-4016

인터넷 홈페이지

요즘 인터넷 할줄 모르면 현대인이 아니라죠? 이곳으로 오시면 한국학생법정과 정대협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witness.peacenet.or.kr/>

후원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학생 법정

학생법정 소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이하 학생법정)을
2000년 4월에 진행합니다.

학생법정은 아시아 각국 젊은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재적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여성인권운동의 지향점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아시아 피해국가 여성·사회단체들이 추진중인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학생법정은 모의재판 외에도 여성인권문제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다양한 학술·문예행사를 곁들일 예정이다.

특히 학생법정은 대학가 주변 하숙집 아주머니나 음식점 주인 등 평범한 시민들로 배심원을 구성,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행사기간은 내년 4월쯤 2박3일간. 현재 홍익대 이화여대 국민대 명지대 경기대 성신여대 성균관대 서울대 서울여대 등 국내 20여개 대학 총여학생회를 비롯, 여학생들의 모임 혹은 개인별로 참여해 <학생법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년학생은 정의에 민감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학생의 기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올바른 해결의 의지를 청년학생의 결의로 모아내고, 20세기 가기 전에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전쟁 중에 발생하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선례를 남기며,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새세기를 맞이하는 의지를 모아내는 장으로 학생법정이 진행될 것이다.

학생법정 기간 활동보고

학생법정은 올 1월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이하 본법정)의 준비과정에서 정대협측의 제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진행될 때에는 3-4개 대학 정도만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10여개 대학에서 준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의 30여개 이상의 대학과 이북, 해외가 더불어 학생법정 준비에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기간의 과정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는 참가대학 조직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시각교정 등의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6월에 진행한 <개이맥두갈 초청세미나>에 함께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6월에 학생법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위한 임시체계를 발족하였다.

또한 한-일 학생들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차이를 좁히고, 한-일 학생들의 연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함께 모색해보는 <한-일 학생 공동 "전쟁과 여성" 워크숍>가 8월 25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26일에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에서 진행하였다.

현재는 정식으로 학생법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위원장, 부위원장, 재정·홍보, 법률, 학술·편집, 기획·문예 분과를 두어 모의 법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을 논의·추진하고 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 세계 인권의 날과 태평양전쟁 시작의 날인 12월 8일을 전후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치뤄질 예정이다.

사실, 2000년 법정은 국가 차원의 권위가 실리거나 구속력이 있는 실제 법정이라 캠페인성 '시민법정'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 또는 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일본인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6개 피해국가와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2000년 법정 개최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법정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여성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명백히 인륜에 어긋나는 전쟁범죄라는 점을 밝혀내고, 상징적이나나 전범을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 여성 성노예 범죄를 처벌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전쟁과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를 이로써 마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현재 정대협에서는 재판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과 법적 배상을 미루고 있는 일본 정부의 부도덕성을 만방에 폭로하고, 이를 위해 피해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법률 및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재판을 준비해가고 있다.

2000년 법정은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일본측 대표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따라서 12월에 2000년 법정 한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지금도 계속 활동중이다.